

구직구인비율과 경기변동 간 관계 분석

이 기 씬*

구직구인비율을 실업자/빈 일자리 비율로 정의하고, 구직구인비율과 경기변동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2009년 이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구직구인비율은 경기변동에 대한 변동폭이 실업률에 비해 크고, 경기와 동행하면서 상관관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가 하락하면 구직구인비율은 유의하게 상승하는데,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성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여 실업의 범위를 확장할 경우 더욱 높아진다. 구직구인비율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경기변동에 더 크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변동과 구직구인비율 간 관계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 머리말

본고에서는 구직구인비율을 분석하여 경기변동과 실업의 관계를 살펴본다. 경기변동과 고용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실업률 지표가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이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지표로 구직구인비율이 있다. 구직은 노동공급 상황을, 구인은 노동수요 측면의 일자리 상황을 나타낸다. 구직과 구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구직구인비율은 노동수급 상황을 동시에 표현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전체 경제상황과의 연관성이 높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몇 가지 실증 분석을 통해 구직구인비율과 경기변동과의 상관성을 확인해 볼 것이다. 분석을 위해 이용한 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ppeum@kli.re.kr).

II. 경기변동과 구직구인비율

1. 자료 설명

구직구인비율은 비어 있는 일자리 수 대비 구직자 수를 의미하며, (구직/구인)으로 정의한다¹⁾. 구직구인비율에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의 일자리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구직자는 감소하고 구인이 증가하면서 구직구인비율은 하락한다. 반대로 경기가 위축되면 구직자가 증가하고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구직구인비율은 상승한다.

구직구인비율을 계산할 때 구직에 대한 정보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자 자료를, 구인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빈 일자리 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구직과 구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는 워크넷 구인구직동향이 있다. 그러나 워크넷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라는 점에서 전체 노동시장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이 글의 분석에서 구직구인비율 계산에 사용한 구인 및 구직자 자료 설명이 <표 1>에 나와 있다. 빈 일자리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일거리 증가 또는 퇴직자 발생으로 한 달 이내에 채용 예정인 일자리이다.

구직자 수에 관해서는 네 가지 통계를 사용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등이다.

① 실업자는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②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조사대상 기간에 실제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이었던 취업자 중에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한다. ③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 기간에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④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조사대상 주간에 일을 원했고, 일이 주어졌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은 사람이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취업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 하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거나,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1) 구인/구직 비율인 구인구직비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본고에서는 구직인원을 구인건수로 나누어 사용한다.

싶은 사람들로 넓은 의미로 보면 구직자이다.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일하기를 희망하고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구직자에 포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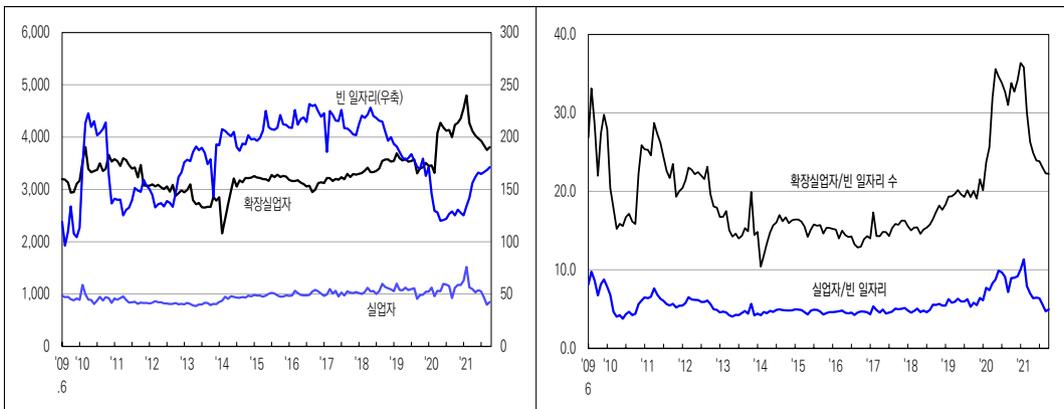
〈표 1〉 구인 및 구직자 분석자료

		용어 설명	출처
구인	빈 일자리	조사기준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빈 일자리 * 구인활동이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취하는 모든 과정(신문·방송 광고, 구두 홍보, 지원서류 접수, 면접 등 최종적으로 채용 확정 공지일 전까지의 과정)을 포함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구직	실업자	1)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2)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3)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1)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2)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3)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1)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2)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가능성이 없었던 사람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1)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2)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을 원하고 3) 취업가능성이 있는 사람 *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	

자료 : 통계청(2021. 1),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정보보고서; 고용노동부(2018. 12),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그림 1〕 구인 및 구직자 수 추이(좌축), 구직구인비율 추이(우축)

(단위 : 천 명, 배)



주 : 1) 확장실업자=실업자+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구직자+잠재취업가능자)
2) 계절조정자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의 변동이 모두 실업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를 잃고 실업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변동 과정에서 실업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변동도 크다면 실업은 과소추정될 수 있다. 실제 코로나 19 확산 이후 2020년 3월~2021년 2월까지 취업자 수는 42만 8천 명 감소하였으나 실업자는 11만 5천 명 증가했다. 고용이 감소한 만큼 실업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취업과 비경제활동인구 간 이동도 많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업자 이외에도 넓은 의미의 구직자에 해당하는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잠재구직자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자료는 2015년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다. 분석을 위한 자료의 시계열이 짧아 2015년 이전은 김태봉·이한규(2020)가 제시한 방법으로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에 우리나라 빈 일자리와 실업자 및 확장실업자 추이가 나타나 있다. 실업자는 통계청 계절조정 자료이고, 확장실업자와 빈 일자리 수는 X-12-ARIMA를 이용해 계절조정하였다.

2. 실업률과 경기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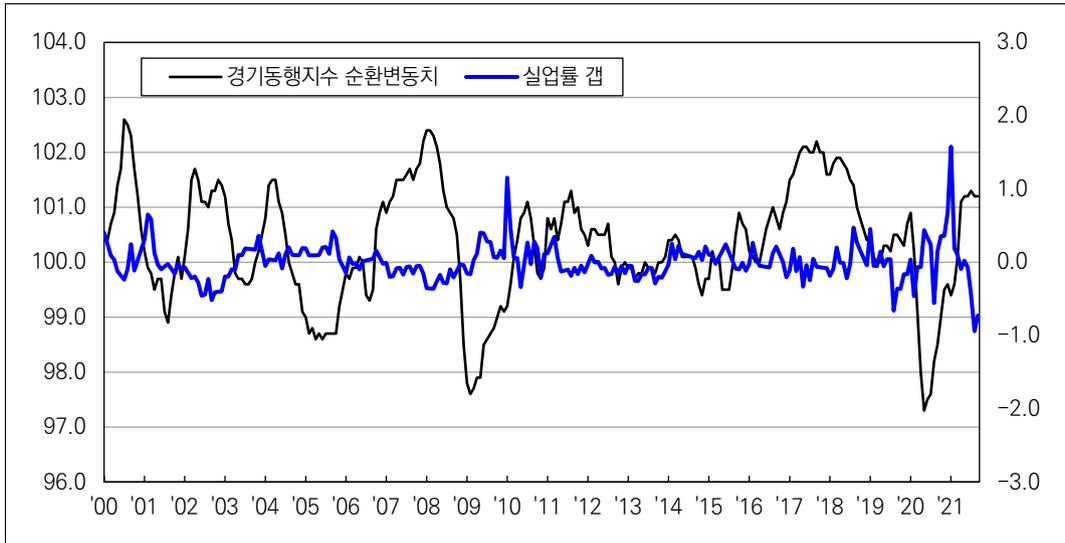
실업과 경기변동 간 관계를 살펴본다. 관련 지표는 모두 순환변동치를 사용하였다.

경기변동과 실업률 간 관계에 대한 오래된 인식은 경기가 호황일 때 실업률이 하락하고,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을 때 실업률은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상관관계가 약하다. 경기 변동폭에 비해 실업률의 변동폭이 작고, 시기에 따라서는 경기가 상승할 때 실업률도 같이 상승하는 등 실업률의 경기 역행적인 움직임도 뚜렷하지 않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변동과 실업률의 상관성이 더욱 약해졌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기변동과 실업률의 상관성이 커졌다. 이러한 특징은 고용보조지표 갭과 경기를 나타낸 [그림 3]에서도 비슷하다.

[그림 4]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와 경기변동 간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4]의 좌측 그림을 보면 경기변동에 대한 실업률의 반응도는 매우 낮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p 상승하면 실업률은 0.09%p 감소한다. 반면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보다 경기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용보조지표의 경기변동에 대한 반응도는 실업률보다 3배 이상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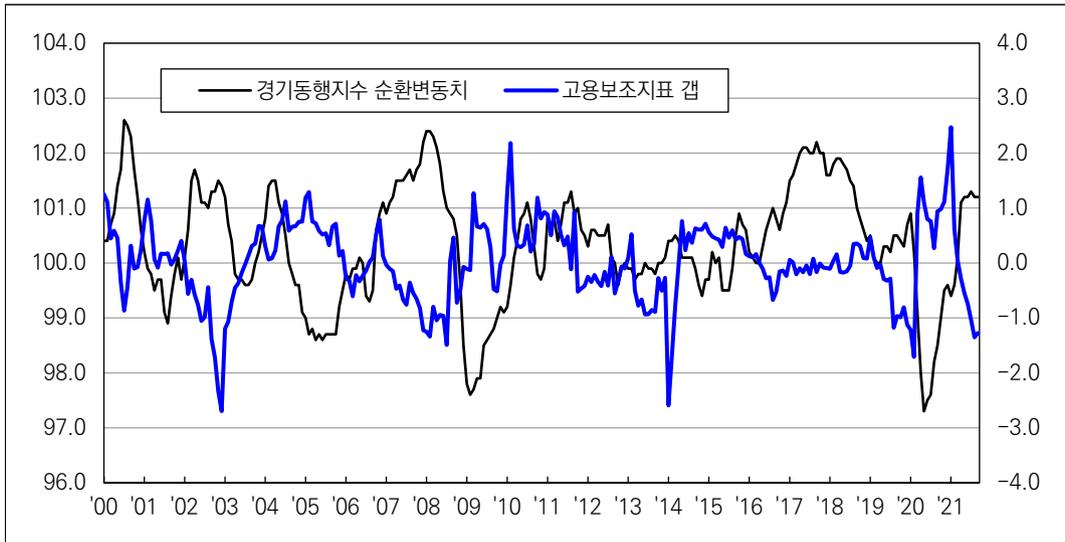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외에 또 다른 경기변동 대응지표로 전산업 생산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의 우측에 나타나 있다. 전산업 생산지수 갭(농림어업 제외)은 전산업 생산지수 순환변동치로 통계청 계절조정 자료를 로그변환한 후 추세를 추출하여 실제 값과 추세 값의 차이를 사용하였다. 전산업 생산지수 갭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경기변동과 실업률의 약한 상관

[그림 2] 실업률 갭과 경기변동(2000년 1월~2021년 9월)



주: 실업률 갭은 계절조정 실업률에 HP필터를 이용하여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이며 단위는 %p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기종합지수」,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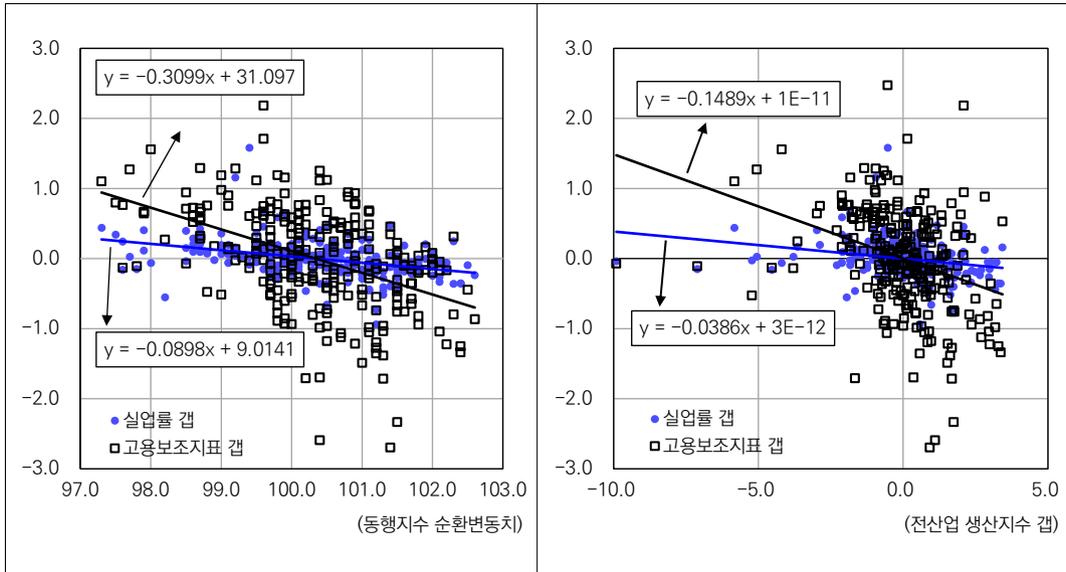
[그림 3] 고용보조지표 갭과 경기변동(2000년 1월~2021년 9월)



주: 고용보조지표 갭은 X-12-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 후 HP필터를 이용하여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이며 단위는 %p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기종합지수」,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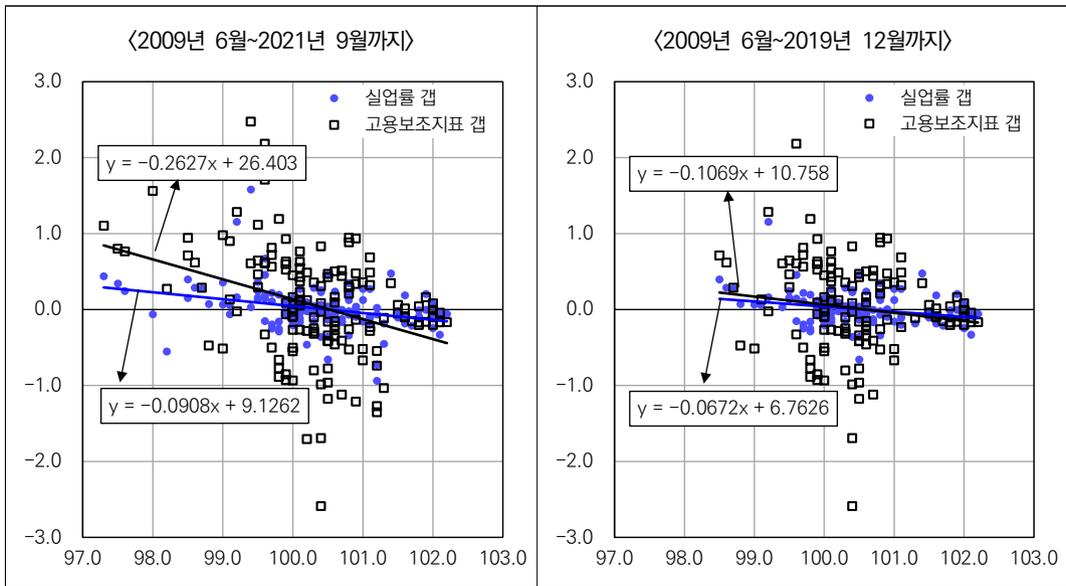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전산업 생산지수가 1% 상승하면 실업률은 0.04%p 하락한다. 실업률보다는 고용보조지표가 경기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림 4] 실업률 갭 및 고용보조지표 갭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좌측)와 전산업 생산지수 갭(우측)
(분석기간 : 2000년 1월~2021년 9월)



주 : (좌) x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y는 실업률 갭 또는 고용보조지표 갭,
(우) x는 전산업 생산지수 갭, y는 실업률 갭 또는 고용보조지표 갭.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기종합지수」, 「전산업 생산지수」, 각 연도.

[그림 5] 실업률 갭 및 고용보조지표 갭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 x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y는 실업률 갭 또는 고용보조지표 갭.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기종합지수」,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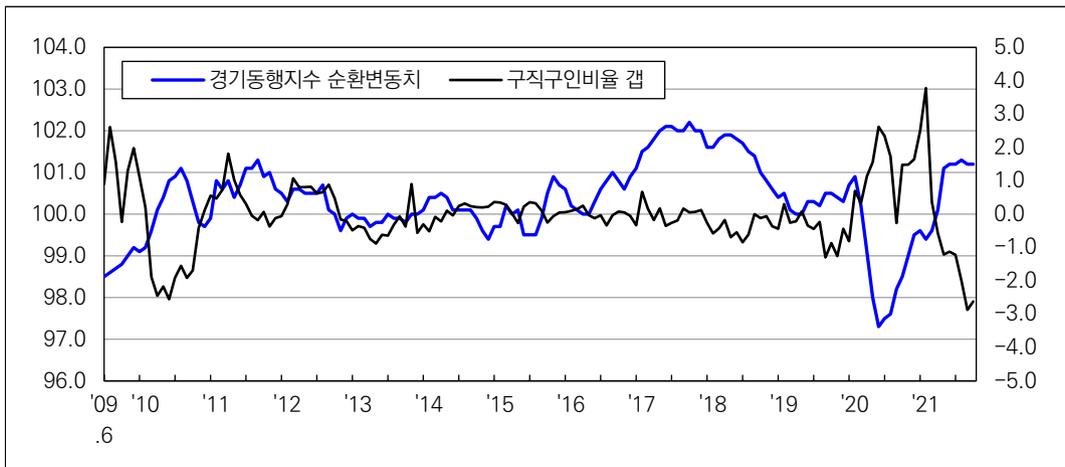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이후 계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0년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비교해 보았다(그림 5의 우측). 분석기간을 2009년 6월~2021년 9월까지로 한정해도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 금융위기 이후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경기변동과 실업률의 연관성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간을 포함할 때보다 더 낮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경기변동과의 연관성이 약하고, 금융위기 이후 연관성이 더욱 약화되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급격하게 경기가 위축된 이후 실업률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경기변동과 실업 간 연계성이 다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자체의 경기 민감성은 낮지만 비경활인구로의 이동까지 포함하는 고용보조지표의 경기 민감성은 실업률에 비해 높다.

3. 구직구인비율과 경기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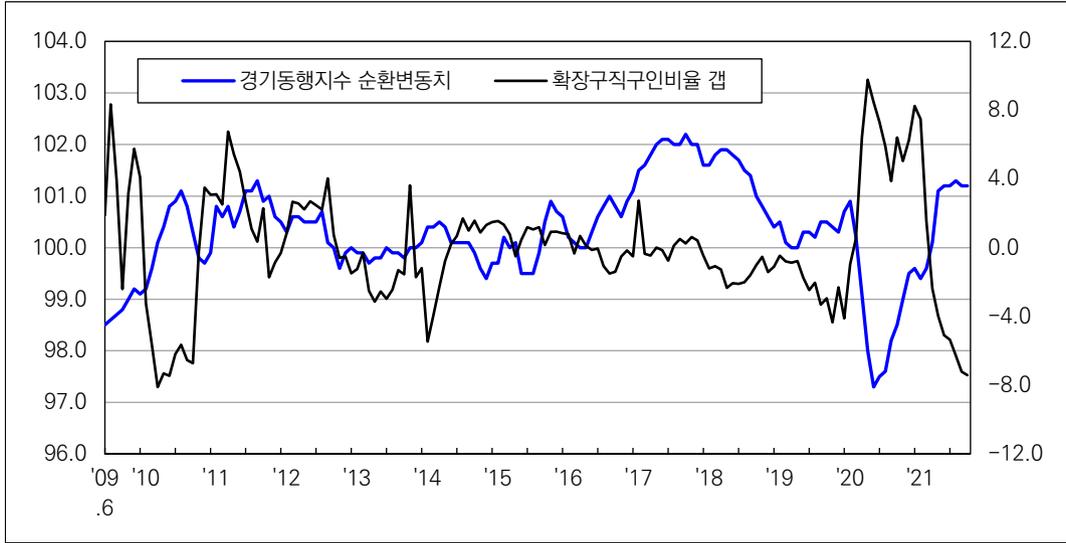
[그림 6]은 2009년 6월~2021년 9월까지 구직구인비율과 경기변동 간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구직구인비율은 계절조정된 구직구인비율에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이다. 경기변동에 따른 구직구인비율의 변동성이 실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구직구인비율과 경기 간 역관계가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기도 있지만, 대체로 구직구인비율 순환변동은 진폭이 크고 실업률에 비해 경기순환과 상관관계가 높다. 특히 확장실업자를 이용하면 경기변동에 따른 구직구인비율의 변동성이 훨씬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역의 관계도 뚜렷하다.

[그림 6] 구직구인비율 갭과 경기변동(2009년 6월~2021년 9월)



주: 1) 구직구인비율 갭은 계절조정된 구직구인비율(실업자/빈 일자리 수)에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임.
 2) 빈 일자리 자료는 2009년 6월부터 제공되어 분석기간은 2009년 6월~2021년 9월까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기종합지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그림 7] 확장구직구인비율 갭과 경기변동(2009년 6월~2021년 9월)



주: 확장구직구인비율 갭은 계절조정된 확장구직구인비율(확장실업자/빈 일자리 수)에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기종합지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표 2> 시차상관분석 결과(분석기간: 2009년 6월~2021년 9월)

시차($t+i$)	동행지수 순환변동치(i)					전산업 생산지수 갭(i)				
	$t-2$	$t-1$	t	$t+1$	$t+2$	$t-2$	$t-1$	t	$t+1$	$t+2$
실업률	-0.21	-0.22	-0.24	-0.20	-0.12	-0.24	-0.23	-0.19	-0.04	0.05
고용보조지표	-0.18	-0.23	-0.25	-0.20	-0.11	-0.27	-0.29	-0.24	-0.12	0.00
구직구인비율	-0.33	-0.42	-0.47	-0.45	-0.39	-0.38	-0.45	-0.46	-0.36	-0.22
확장구직구인비율	-0.31	-0.41	-0.46	-0.45	-0.38	-0.38	-0.47	-0.48	-0.41	-0.24
민간 구직구인비율	-0.35	-0.44	-0.49	-0.48	-0.41	-0.40	-0.48	-0.50	-0.40	-0.26
민간 확장구직구인비율	-0.33	-0.43	-0.49	-0.48	-0.41	-0.40	-0.48	-0.51	-0.44	-0.28

주: 1) 민간 구직구인비율은 15~64세 실업자/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업을 제외한 빈 일자리 수, 민간 확장구직구인비율은 15~64세 확장실업자/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업을 제외한 빈 일자리 수를 의미함.
 2) 모든 지표는 계절조정된 자료이며,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기종합지수」, 「전산업생산지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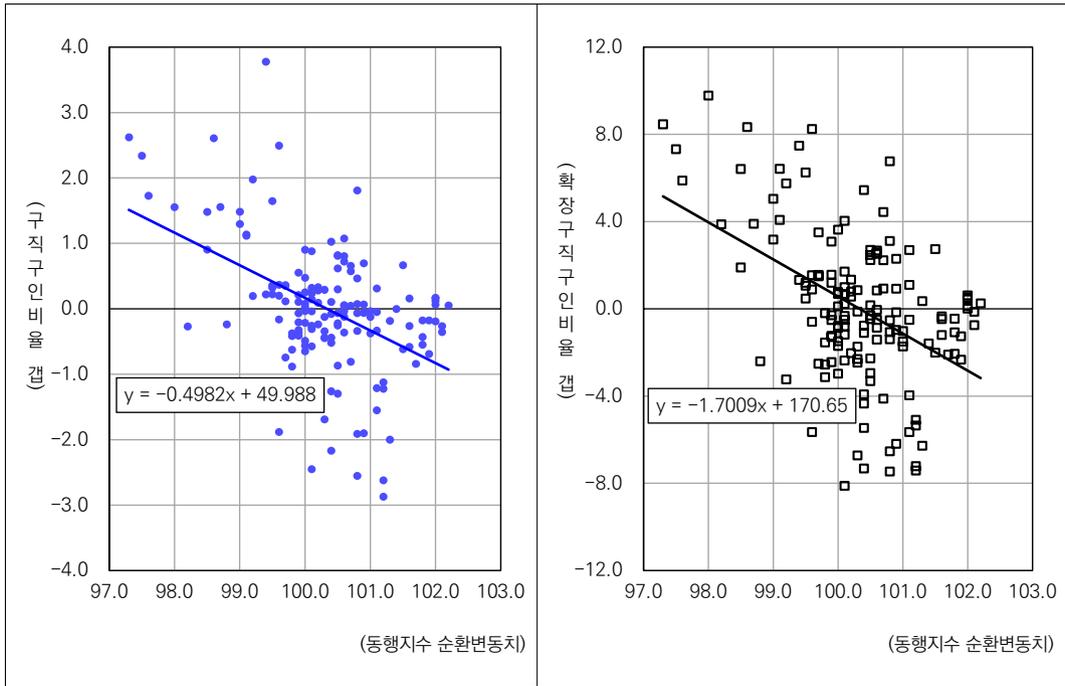
<표 2>는 2009년 6월 이후 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 그리고 구직구인비율과 경기변동 간 시차상관계수를 나타낸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의 분석결과를 보면, 실업률과 구직구인비율은 대체로 경기에 동행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경기변동과 실업률의 상관관계수는 -0.24, 고용보조지표는 -0.25로 모두 경기변동과의 상관관계가 낮다. 한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구직구인비율 간 상관관계는 -0.47, 확장구직구인비율과의 상관관계는 -0.46으로 구직구인비율

과 경기변동 간 상관관계가 실업률에 비해 높다.

경기변동과 실업 간 연관성이 약화된 원인 중 하나로 경기에 대응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같은 고용정책의 영향이 제기된다. 이를 고려하여 공공행정 및 보건·사회복지업을 제외한 민간부문 빈 일자리와 15~64세 실업자 비율로도 분석해 보았다(이하 민간 구직구인비율). 민간부문으로 한정하면 구직구인비율의 경기 역행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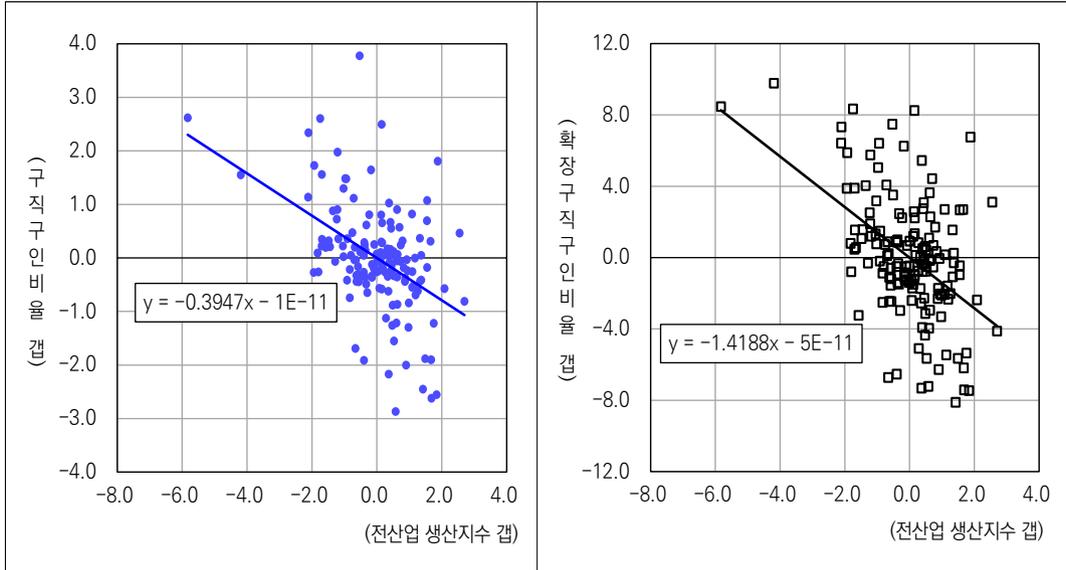
[그림 8]은 2009년 6월~2021년 9월까지 구직구인비율 및 확장구직구인비율과 경기변동 간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구직구인비율과 경기변동 간 관계를 추정한 결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p 상승 시 구직구인비율은 0.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넓은 의미의 실업을 이용한 확장구직구인비율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p 상승하면 유의하게 1.7p 하락한다. 구직자의 범위를 확장하면 경기변동에 따른 구직구인비율의 민감도가 더욱 커진다. 전산업 생산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다. 전산업 생산지수가 1% 상승하는 경우 구직구인비율은 0.4p 하락한다. 확장구직구인비율의 경기변동성은 구직구인비율보다 3배 이상 커져 구직구인비율보다 경기순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구직구인비율 갭(좌) 및 확장구직구인비율 갭(우)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분석기간 : 2009년 6월~2021년 9월)



주 : x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y는 구직구인비율 갭 또는 확장구직구인비율 갭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기종합지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그림 9] 구직구인비율 갭(좌) 및 확장구직구인비율 갭(우)과 전산업 생산지수 갭(분석기간: 2009년 6월~2021년 9월)



주: x는 전산업 생산지수 갭, y는 구직구인비율 갭 또는 확장구직구인비율 갭.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산업 생산지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의 변동은 경기가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이벤트로 경제 상황이 큰 폭으로 변동할 때도 실업과 경기변동 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업과 경기변동 간 관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동회귀분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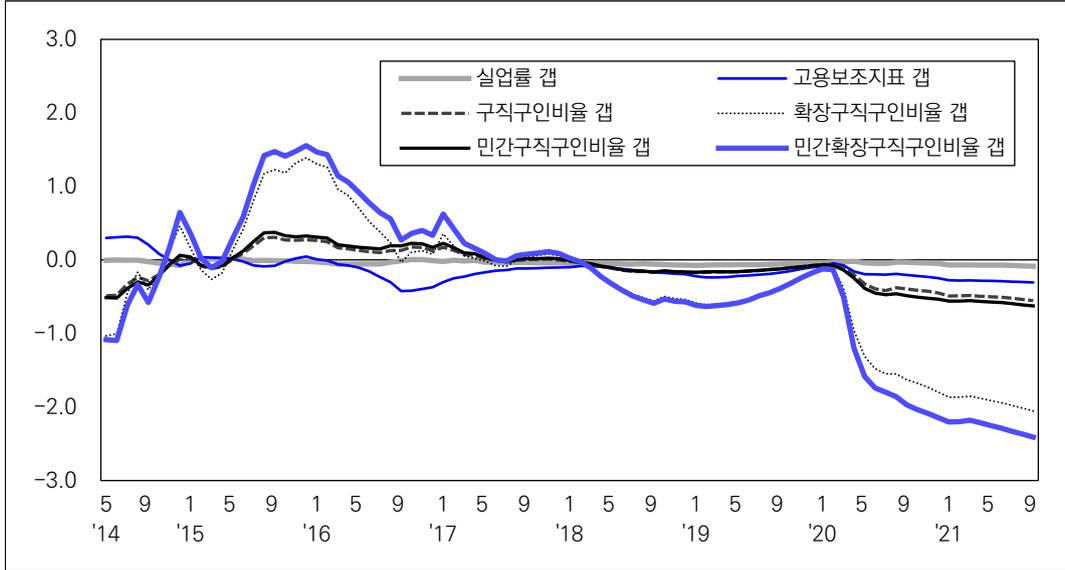
[그림 10]과 [그림 11]에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실업률 갭 및 구직구인비율 갭의 이동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그림 10]은 각 시점의 과거 5년의 자료로 추정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2014년 5월 값은 2009년 6월~2014년 5월까지 기간에서 경기변동과 지표 간 관계를 추정한 추정계수이며, 2014년 6월 값은 2009년 7월~2014년 6월까지 기간에서 추정한 추정계수이다.

[그림 10]을 보면 실업률은 전 기간에 대해 추정계수가 0에 가깝다. 경기변동과 실업률의 상관성은 매우 낮다. 고용보조지표도 특정 시기에 경기에 대한 반응도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추정계수의 값이 작다. 구직구인비율의 경우 2018년 이전에는 경기와 역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2018년 이후로는 경기에 역행한다. 2018년 이후 확장구직구인비율과 민간부문 확장구직구인비율의 경기 민감도가 다소 높아졌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을 지나면서 확장구직구인비율의 경기 민감도가 급격하게 높아졌다.

표본기간을 2년으로 좁혀 분석한 결과가 [그림 11]이다. 표본기간을 2년씩 이동시켜 분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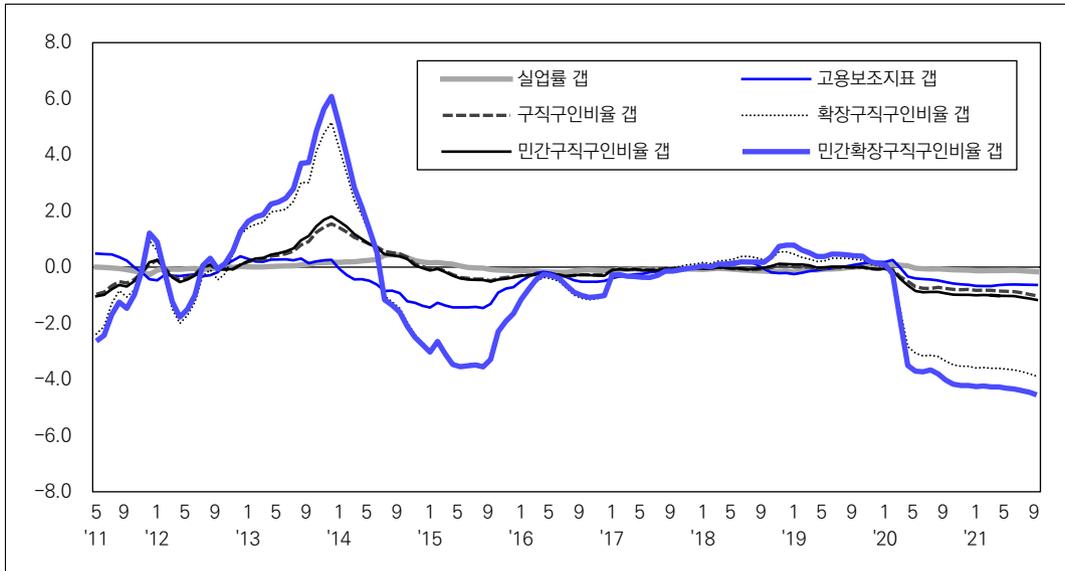
보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경기변동과 고용보조지표 및 구인비율 간 역의 관계가 강화된다. 실업률은 표본이동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좁혀도 전 기간에 대해 추정계수가 0에 가깝다.

[그림 10]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실업률 및 구직구인비율 이동회귀분석 결과(표본이동기간: 5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기종합지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그림 11]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실업률 및 구직구인비율 이동회귀분석 결과(표본이동기간: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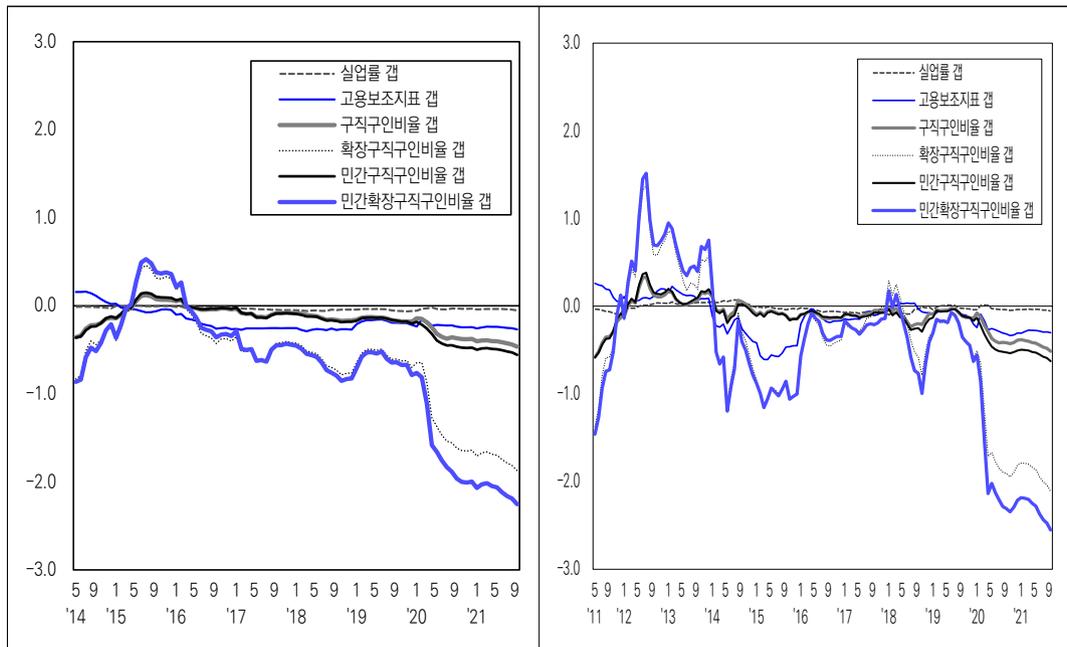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기종합지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반면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시기별로 경기변동과의 연관성 크기에 차이가 있다. 2014~15년 상반기까지 고용보조지표의 경기반응성이 점점 커지고 2015년 하반기부터 다시 작아진다. 또한 2020년을 기점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고용보조지표의 민감성이 이전 기간에 비해 높아졌다. 고용보조지표의 경기변동에 대한 반응도가 커진 두 시기는 모두 경기가 좋지 않았던 시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4~15년 상반기 기간에 대한 분석의 표본기간은 우리나라 기준순환일 기준으로 제10순환기의 경기수축기(2011년 8월 정점~2013년 3월 저점까지)와 상당기간 겹친다.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하게 경기가 위축되었던 시기이다. 경기가 좋지 않았던 두 시기에 경기변동과의 연관성 강화는 구직구인비율, 확장구직구인비율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민간부문 확장구직구인비율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경기변동에 따른 반응도가 매우 커진다.

경기변동 대응지표로 전산업 생산지수 갭을 이용한 분석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이용한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5년 단위로 표본을 이동하여 분석해 보면 2016년 이후 경기와 구직구인비율의 역의 관계는 강화된다. 표본기간을 2년씩 이동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용보조지표와 확장구직구인비율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경기순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2020년 이후로 민간부문 확장구직구인비율은 높은 경기대응성을 가진다. 즉, 2020년 이후로 경기가 하락할 때 민간부문 확장구직구인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한다.

[그림 12] 전산업 생산지수 갭과 실업률 및 구직구인비율 이동회귀분석 결과(표본이동기간 좌측: 5년, 우측: 2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산업 생산지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III. 맺음말

본고에서는 구직자와 빈 일자리 비율인 구직구인비율을 이용해 경기변동과 실업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직구인비율은 경기와 상관관계가 높다. 실업률에 비해 경기변동에 따른 구직구인비율의 변동폭이 크고, 경기와 역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경기변동과 구직구인비율 간 관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경기변동과 고용보조지표 및 구직구인비율의 연관성이 강화되었다. 특히 민간부문의 확장구직구인비율은 2020년 이후 경기변동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2020년 이후로 경기가 하락하면 민간부문의 확장구직구인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변동이 있을 때 실업과 취업 간 이동뿐만 아니라 비경활인구와 취업 간 이동도 빈번하다. 따라서 실업자만 고려할 때보다 실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 경기변동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 또한 구직구인비율과 같이 노동수요와 공급 측면의 정보가 모두 담긴 지표는 경기변동과 더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 이로부터 경기변동과 실업 간 관계 분석에 구직자의 범위를 확장한 구직구인비율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KLI**

[참고문헌]

김태봉 · 이한규(2020),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희생산능력 추정 및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분석」, 『노동경제논집』, 43(4), pp.1~34.

통계청(2014. 11), 「고용보조지표 관련 10문 10답」, 보도참고자료.

〈부 록〉

고용보조지표의 구성요소 중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 자료는 2015년 이후부터 사용가능하다. 본고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시계열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이전 자료를 김태봉·이한규(2020)에 따라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1) 총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 2)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고 3) 조사대상 기간에 일자리가 있었을 경우 추가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통계청 자료는 3) '추가취업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2012년부터 제공한다. 다만 2012~14년 기간의 추가취업가능성에 대한 자료는 2015년 이후와 바로 연결하기 어렵다. 2012~14년은 '추가취업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의 답변 문항이 '① 지난주에는 가능하였음 ② 1주일 이내 ③ 1주일~1개월 이내 ④ 1개월 후에 ⑤ 잘 모름'으로 구성되어 있고, 잘 모름으로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다. 2015년 이후는 '추가취업가능성'에 대한 답변 문항이 '① 예 ② 아니오'로 구성된다. 따라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2015년 이전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정하였다. 2015년 이후 기간에서 추가취업희망자 중 추가취업이 가능한 사람의 비율을 구하고, 2015~18년까지 그 비율을 평균하여 2015년 이전 자료를 보정하였다.

잠재구직자는 2000년부터 자료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2014년 조사표 변경으로 인한 시계열의 단절이 있다. 따라서 2015년 이전과 이후 4년간의 평균이 일치하도록 2015년 이전 자료들을 보정하였다.

15~64세로 연령대를 한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 시계열을 연장하였다.